

# 한 총림서 나와 다른 총림으로 들어갔는데...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 해인총림 방장)



출일총림입일총림(出叢林入叢林)  
삼봉수급 오로운심(三峰水急五路雲深)  
산등방과무타의(山藤放過無他意)  
향도진유불환금(向道眞鍊不換金)

한총림에서 나와서 다른 총림으로 들어갔는데  
삼봉에는 물이 급하고 오로운에는 구름이 깊도다.  
등나무 몽둥이로 때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늦쇠와 순금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보였네.

경청(鏡淸) 선사께서 어떤 납자에게 물었  
습니다.  
“요즘 어디서 왔는가?”

“삼봉(三峰)에서 떠나 왔습니다.”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름은 어디에서 지냈는가?”  
“오봉(五峰)에서 지냈습니다.”  
그러자 선사가 말했습니다.  
“그대에게 서른 방망이를 때리리라.”  
“저의 허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선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대가 한 총림에서 나와서 다른 한 총림  
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니라.”(중략)

경청(鏡淸) 선사께서 행각을 하는 어떤 납  
자에게 온 곳을 물으니 삼봉(三峰)과 오봉(五  
峰)이라고 대답하니 삼십방망이를 휘두릅니  
다. 그러자 그 납자는 억울하다고 여겼던지

무엇이 잘못이냐고 따지니 한 총림에서 나와  
서 다른 한 총림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중략)

그렇다면 산승이 해제대중들에게 물겠습  
니다.  
경청선사의 법문낙처(法門落處)를 알겠습  
니까?  
모르겠다면 행각을 하면서 늘 참구해야 할  
것입니다.

해고종견저(海枯終見底)니와  
인사부지심(人死不知心)이로다.  
바다가 마르면 마침내 바닥을 보거나와  
사람은 죽어도 마음은 알지 못한다.

## 전국 총림 해제법어(요약)...전문은 buddhanews.com

하안거 해제에 맞춰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을 비롯해 각 총림 방장 스님들은 석 달간 수행에 매진한 수좌들을 격려하는 법어를 내렸다. 방장 스님들은 수좌들을 향해 “정진 또 정진하여 견성오도한 후 중생을 위하여 무엇을 도울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계총림과 영축총림은 해제 당일 법어를 내리기로 해 지면에 실지 못했다. (8월 27일 현재)

## 푸른 파도 우레로 변해 용을 보내네

### 원담 스님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무사노옹갈일성(無事老翁曷一聲)  
진곤요탕대풍생(眞坤搖蕩大風生)  
천변백운산곡(天邊白雲隱山谷)

옛 스님이 이르기를 “일갈(一曷)에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마르니 전체가 활짝 벗어나 규모(規模)가 없다. 진흙소가 구름 밖으로 뛰어 오르니 아름다운 소문이 거라마다 가득하다” 했는데 대중들은 이 소식을 알겠는가!

(주장일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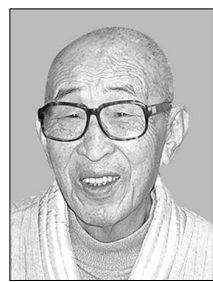
일갈(一曷)은 봄날의 우레 같느니라.

일 없는 노옹(老翁)의 한 소리 할애  
하늘과 땅이 요동하고 큰 바람이네  
하늘 끝 흰 구름은 산 계곡에 숨고  
푸른 파도는 우레로 변하여 용을 보내네

## 눈 똑바로 뜨고 참사람 봐야 하느니라

###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삼불형의총불진(三佛形儀總不眞)  
안중동자면전인(眼中心童子面前人)  
약능신득가중보(若能信得家中寶)  
제조산화일양춘(啼鳥山花一樣春)

부처님이 삼십이종상 팔십종호의 훌륭  
한 모습을 갖추었으나  
이 모두 참이 아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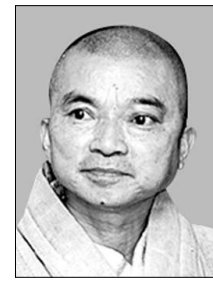
눈 똑바로 뜨고 참사람을 바로 보아야 하느니라.  
만약 능히 집안의 보배를 믿어 얻으면,  
새 소리와 산에 피는 꽃이 한

가지로 이 봄소식이다.

## 봄 가을 겨울 여름 어느때든 항상 좋아

### 지허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칠전선원장)



아금장하위령인(我今將何爲令人)  
춘추동하호시절(春秋冬夏好時節)  
열향계변한향화(熱向溪邊寒向火)  
한절백운어반결(閑戴白雲夜半結)

내 이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거냐  
봄 · 가을 · 겨울 · 여름 어느 때든지 항상  
좋아

더우면 물가에 가고 추우면 불을 쬐며 한가하면 흰구름과 같이하고 밤이면 잠선하네.

(중략) 출가사  
문이 가진 것이라곤 수행하여 견성오도한 것 밖에 없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남을 깨달게 하는 것이 남을 돕는 것입니다.

## 30일 하안거 해제... 선방 풍경

바람결에 어깨춤을 추고 있는 장삼자락 사이로 선방 앞 공터에는 빨래를 널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비친다. 한쪽에서는 깨끗이 씻어말린 발우를 거두는 손길이 바쁘다. 석 달간의 하안거(夏安居) 해제를 며칠 앞둔 선방들은 해제에 앞서 옷과 발우 등 그동안 사용했던 살림을 깨끗이 손질하는 스님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선방 스님들은 해제 3-4일전쯤 준비를 내려놓고 자신이 입던 장삼, 깔고 앉았던 좌복 등을 꺼내 세탁하기 시작한다. 이는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 내려왔던 해제의 식으로, 다음 칠 정진을 위한 또 하나의 준비의식이다.

안거는 음력 10월 보름-정월 보름, 4월 보름-7월 보름까지 일년에 두 차례 스님들

이 선방에 머물러 수행 정진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하안거 해제는 8월 30일. 원래 안거는 부처님 당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며 생활하는 출가 수행자들이 우기(雨期)인 여름철에 폭풍우를 만나 피해를 입기도 하고, 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초목과 벌레들을 해치는 사례가 많아지자 시기에 아예 외출을 금하고 수행에만 몰두하던 관습에서 유래한다. 현대에 들어와 안거는 산중과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일컫는다.

석 달간의 안거생활을 마친 스님들의 눈길은 어떨까?

대부분의 스님들은 산문을 나서며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한다고 말한다. 하나는 안거 기간동안 큰 도를 이루지 못한 아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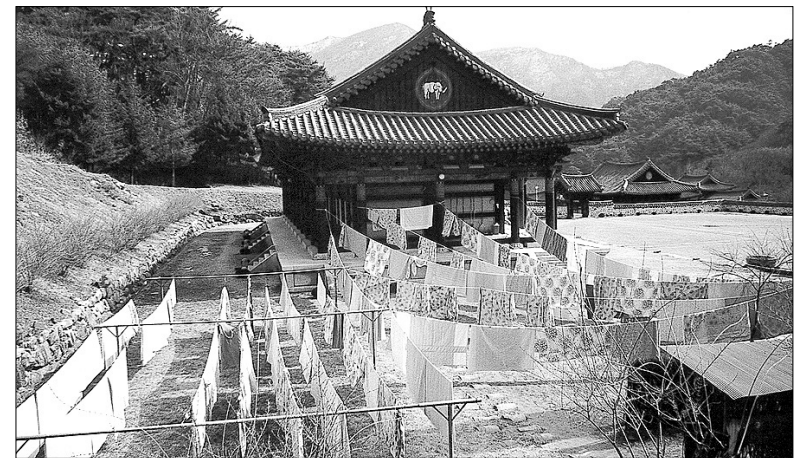
## 장삼·좌복·발우 등 살림 깨끗이 손질

## 마지막날 포살·自恣 통해 대중 앞에서 참회

움. 또 하나는 다시 속세로 돌아간다는 설레임이다. 어떤 스님들은 그런 감정이 안거의 횡수와 상관없이 거듭되는 것 같으며 속스러워 하기도 한다. 사실 해제를 보름정도 앞두고 부터는 마음이 다소 산란해진다고 한다. 빨리 산문을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번뇌로 찾아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스스로를 다그치고 수행에 정진하는 게 선방의 스님들이다. 일부 스님들은 해제와 함께 또 다시 산(散)월(월)결제에 들어가기도 한다. 막상 수행의 참맛을 어렵잖아나마 알 것 같을 때 해제를 하기가 곤란한 스님들은 그대로 선방에

남아 안거를 계속한다. 이러한 스님들은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년 까지 안거를 지속한다.

안거 마지막 날은 자자(自恣)를 통해 안거 중에 한 행동들을 대중 앞에 참회하고 잘못을 지적받는다. 요즘은 포살과 자자를 통해 서로의 잘못을 호되게 꾸짖는 것에서 스스로 참회하는 형식이 대부분이다. 이를 마친 스님들은 선방에서 친하게 지낸 도반들과 삼삼오오 모여 다담(茶談)을 나누기도 한다. 이때 오가는 얘기는 주로 앞으로 자신의 수행 향로에 관한 것일 경우가 많다. 해제날이 밝으면 결제를 지낸 스님들



해제를 며칠 앞둔 선방의 수좌들은 다음칠 정진을 위해 석달간 자신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깨끗이 정리한다. 문경 봉암사 수좌들이 자신의 옷을 깨끗이 빨아 널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은 머물던 요사를 정리하고 안거증을 받은다. 이어 법당에 앉아 조실스님 등 큰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약간의 해제비와 발우, 장삼, 실바늘 등 6물을 담은 걸람

을 짊어진 채 산문을 나선다. 수행자에게 수행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깨달음을 향한 구도의 길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은경 기자 lipok@buddhapia.com

##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곤지암 우리절

#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 특별기도

####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 금주익발원

#### [새벽첫송-4]

이제부터 이몸으로 부처몸이 되기까지 금한계를 굳게지니 궤범하지 않으리다 바라오니 부처님은 증명하여 주옵소서 몸과목숨 부쉬져도 물러서지 않으리

세존께서 수행자로 설산중에 들어가사 자리잡고 앉으시매 육년세월 모르셨네 하루아침 셋별보고 무상대도 깨치시니 어느새에 그애기가 삼천계에 두루했네

고요하게 남대앉아 향한자루 사르고서 종일토록 우두커니 온갖생각 놓고보니 마음쉬고 망상또한 없앨것도 없거니와 굳이어서 세상사를 헤아릴게 또한없네